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70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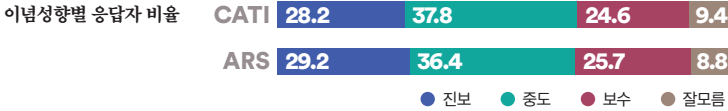
제85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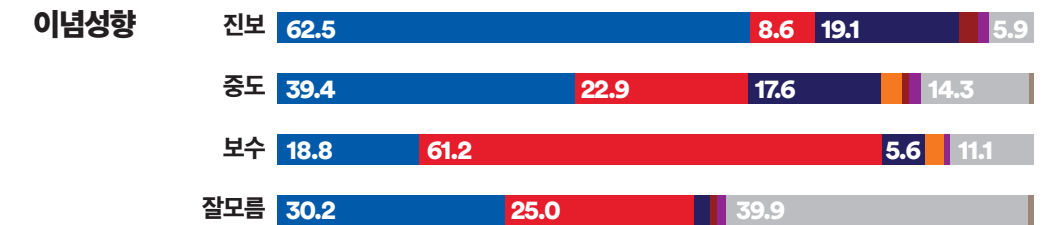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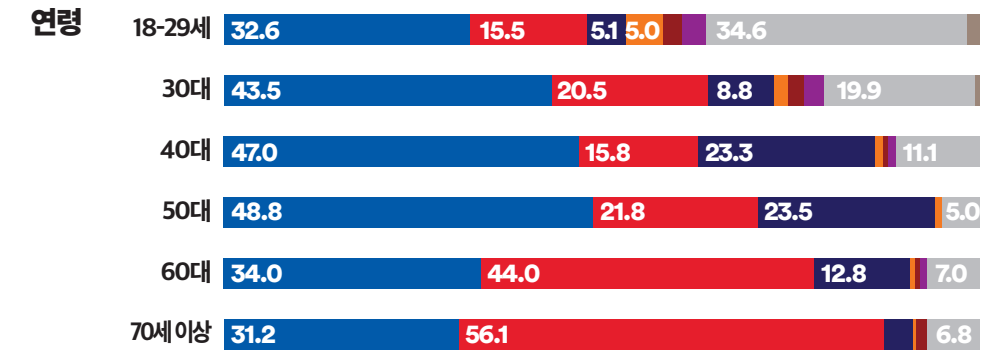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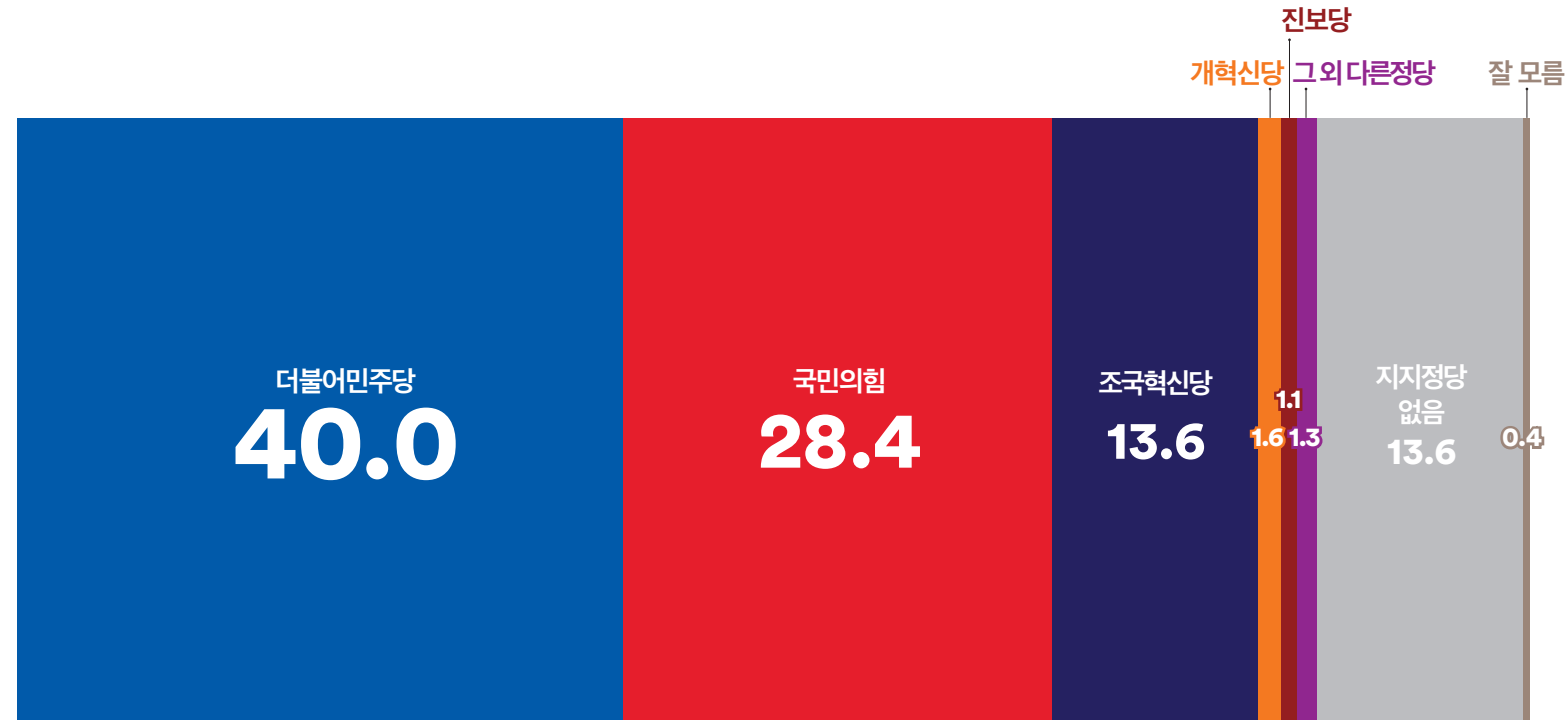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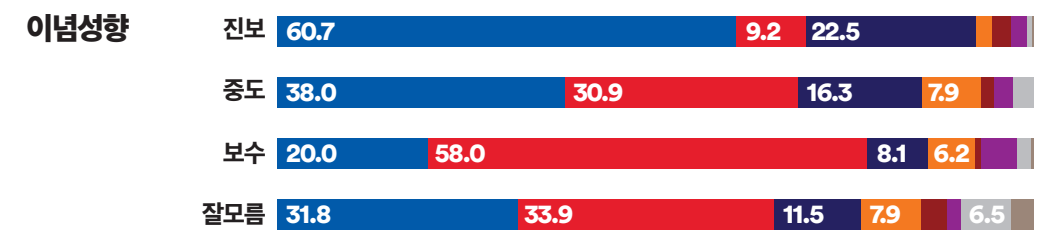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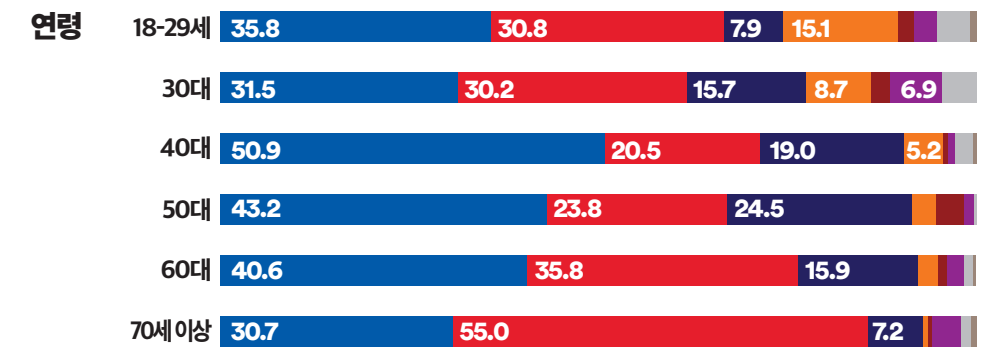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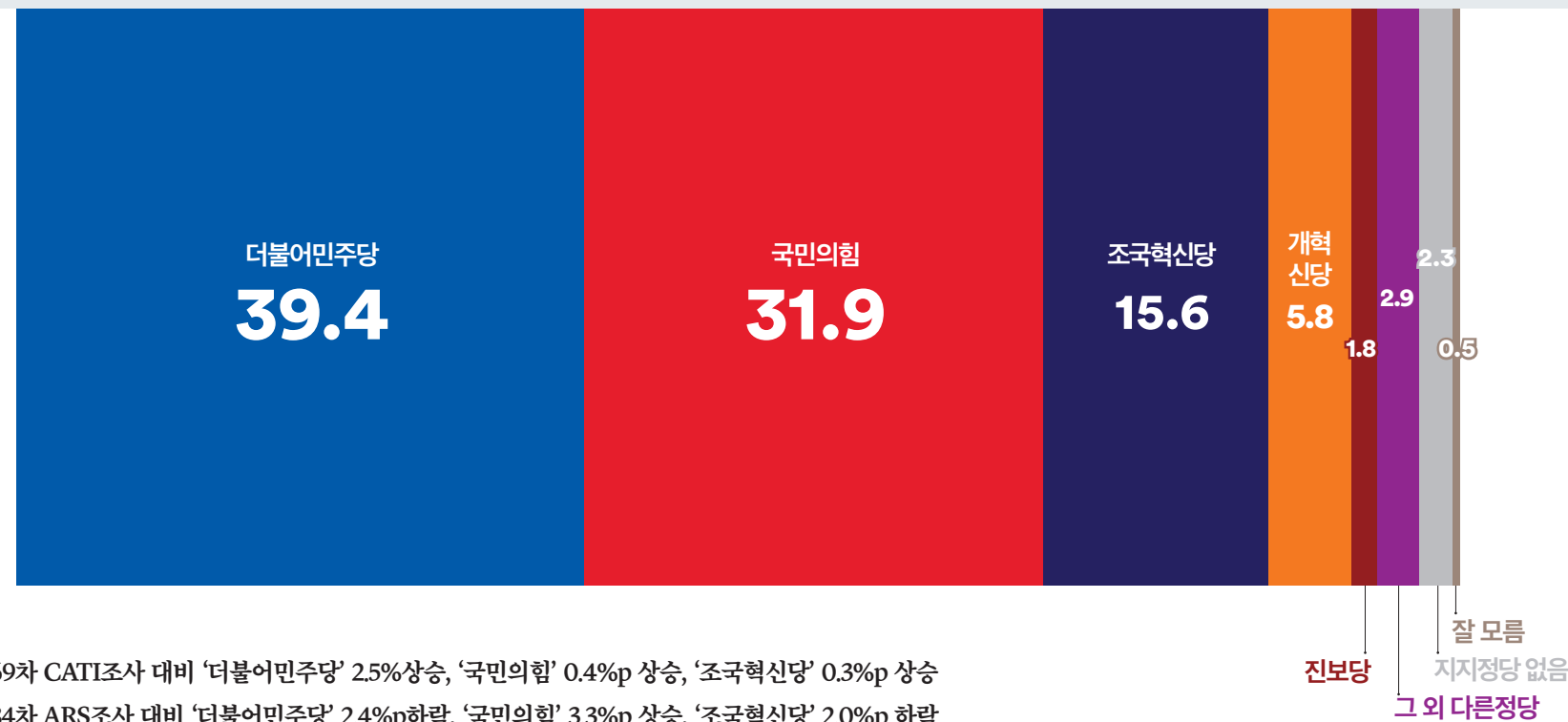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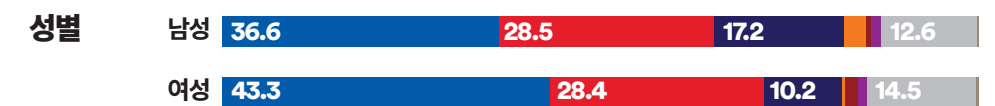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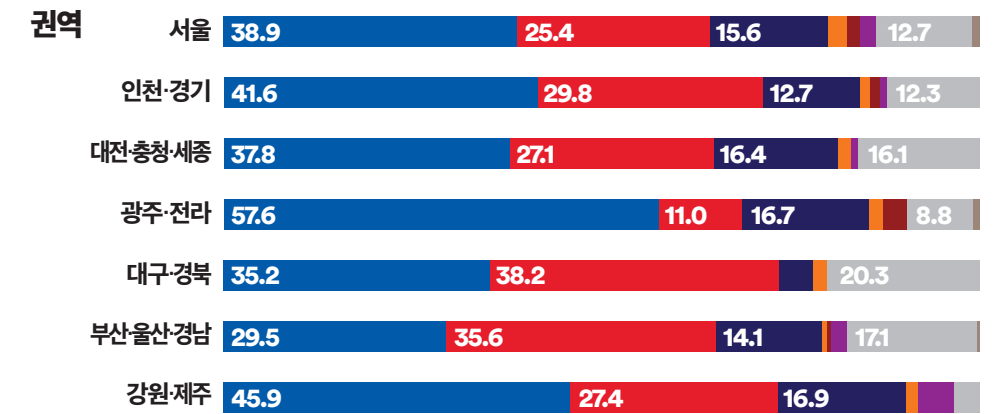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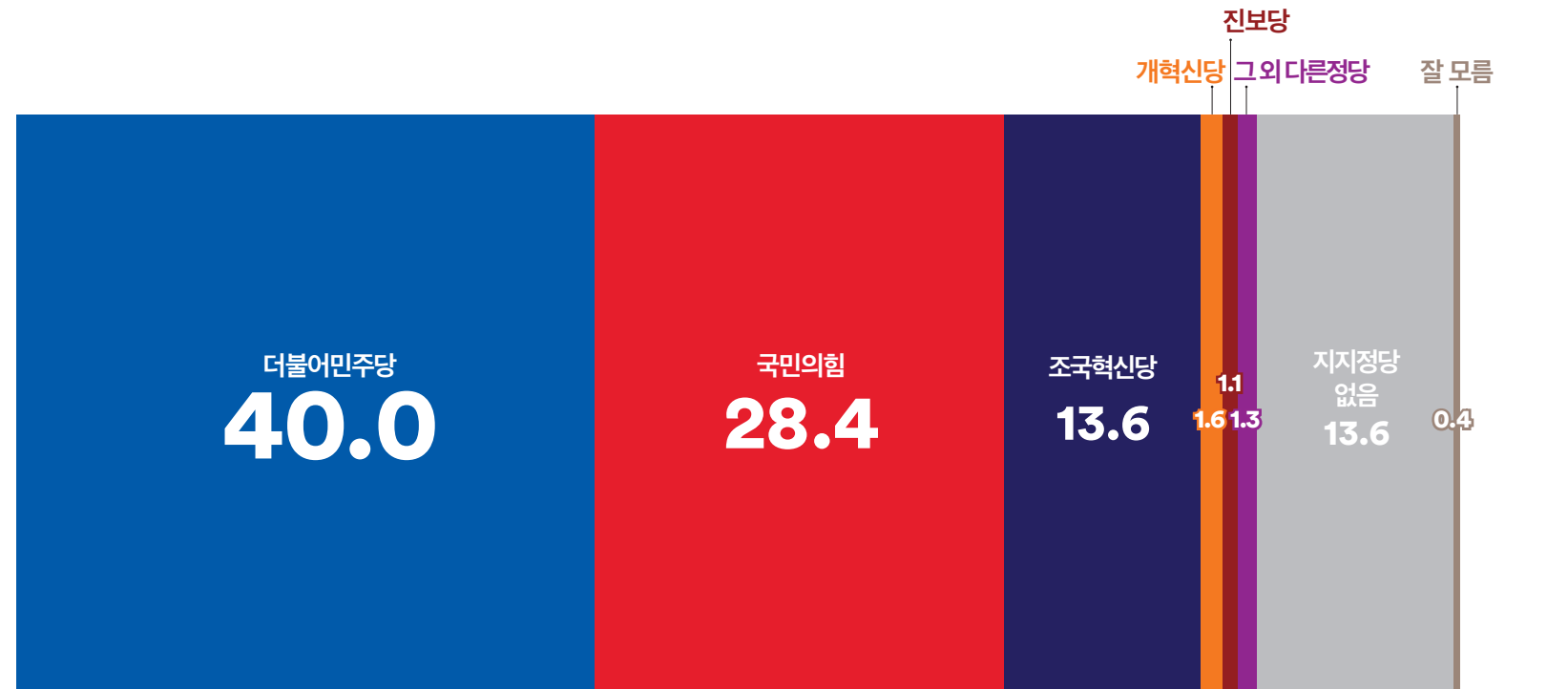


69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5%p 상승, '국민의힘' 0.4%p 상승, '조국혁신당' 0.3%p 상승  
 84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하락, '국민의힘' 3.3%p 상승, '조국혁신당' 2.0%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1.6%p, ARS 7.5%p(지난주: CATI 9.5%p, ARS 13.2%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5.2%p, ARS 23.1%p(지난주: CATI 22.8%p, ARS 3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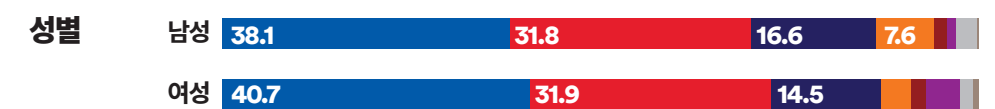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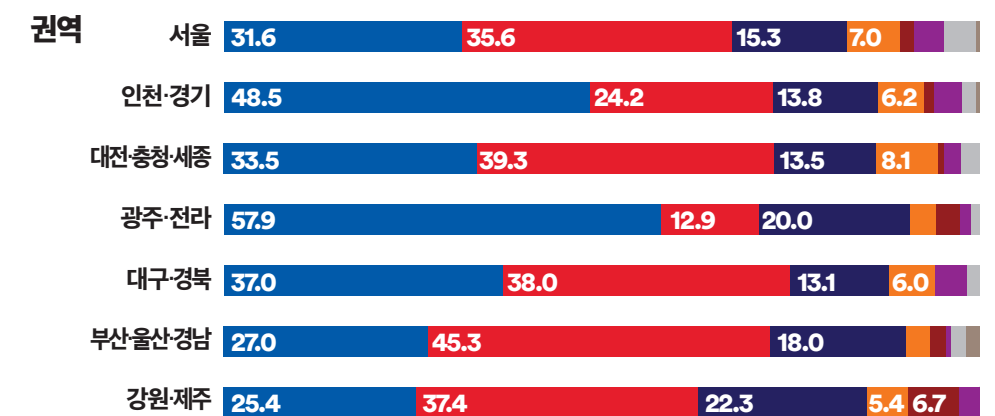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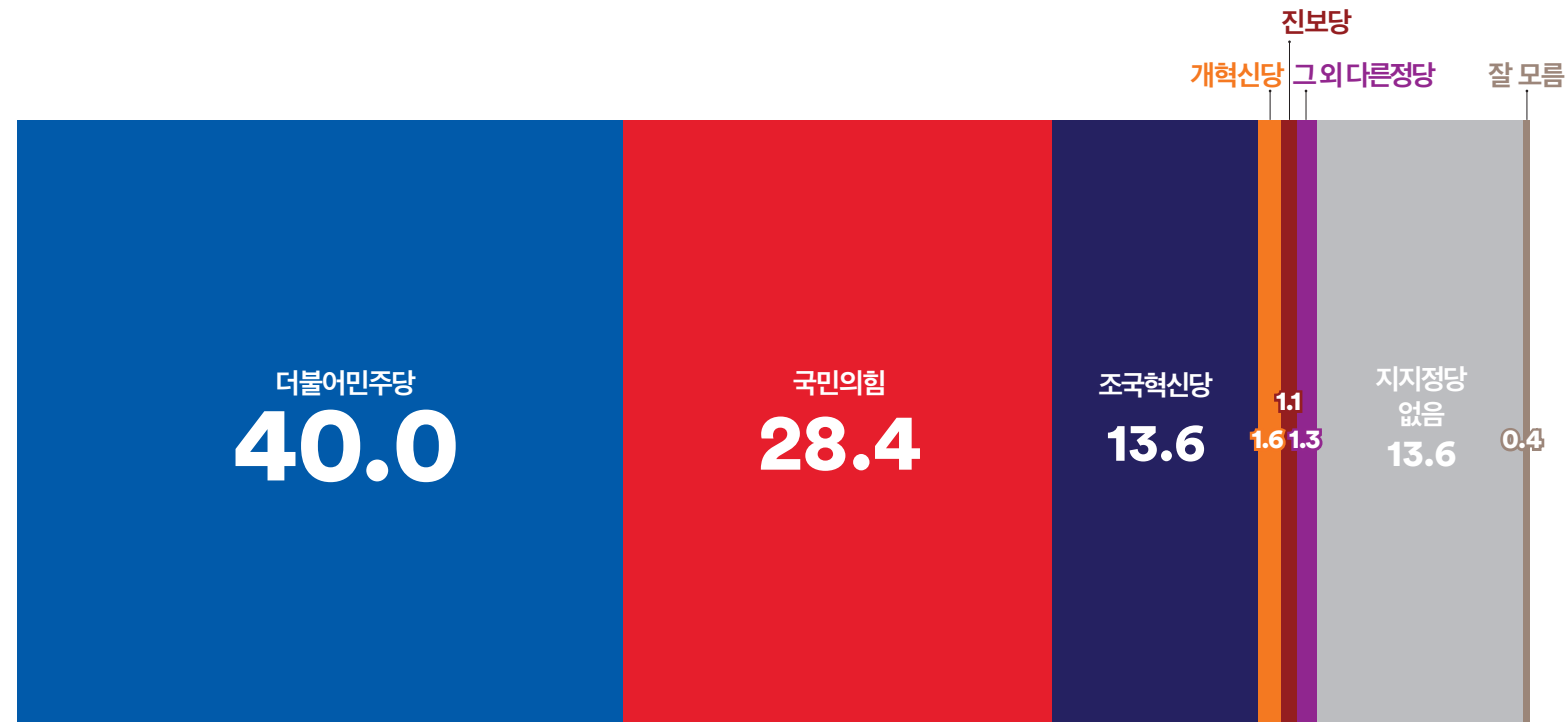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경인권 및 호남권(CATI 서울, 충청, 강원·제주 포함)에서 우세

지난주 우세를 보였던 TK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조사 모두 크게 하락하고, ARS조사에서 PK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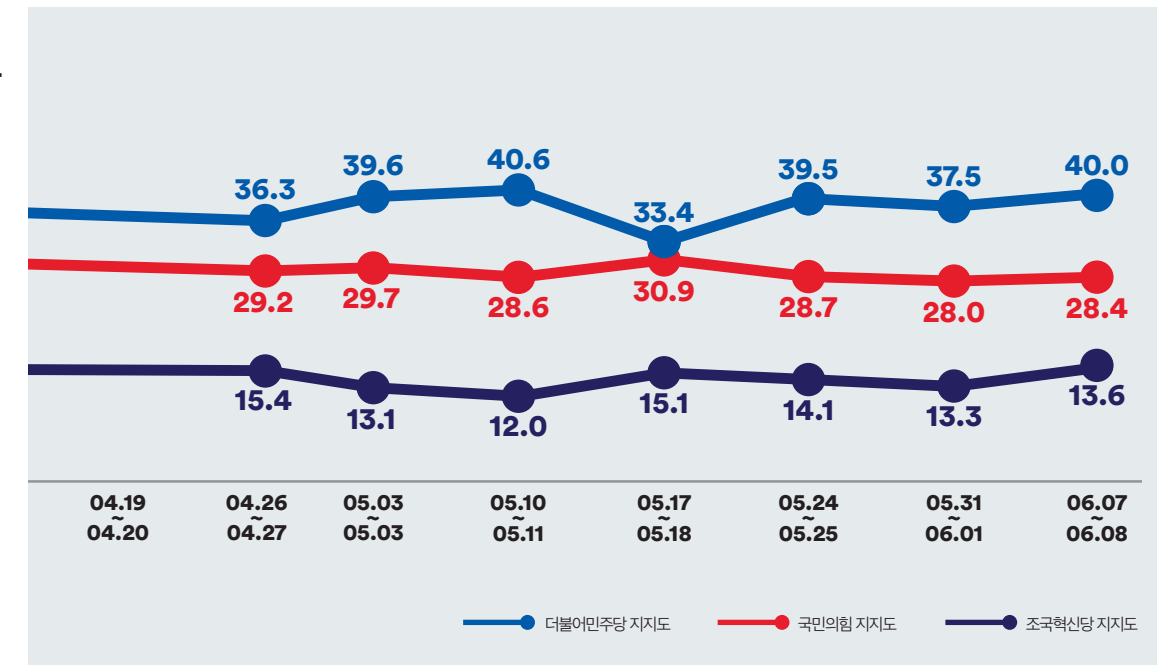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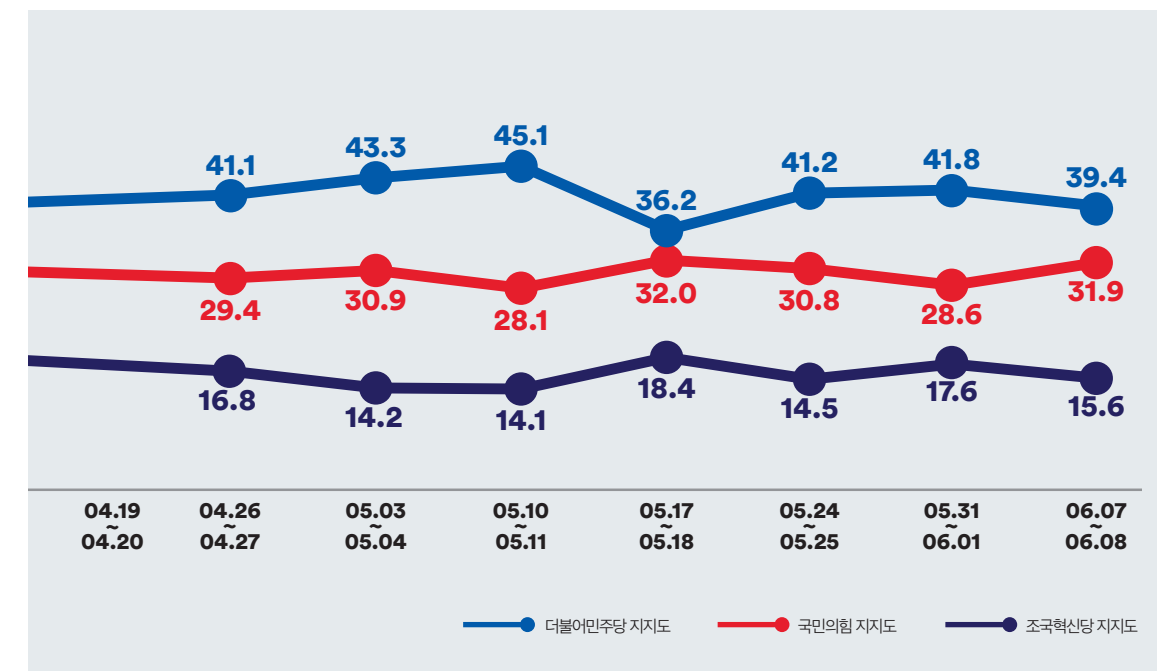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9.4%, '국민의힘' 22.9%, '조국혁신당' 17.6%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8.0%, '국민의힘' 30.9%, '조국혁신당' 16.3%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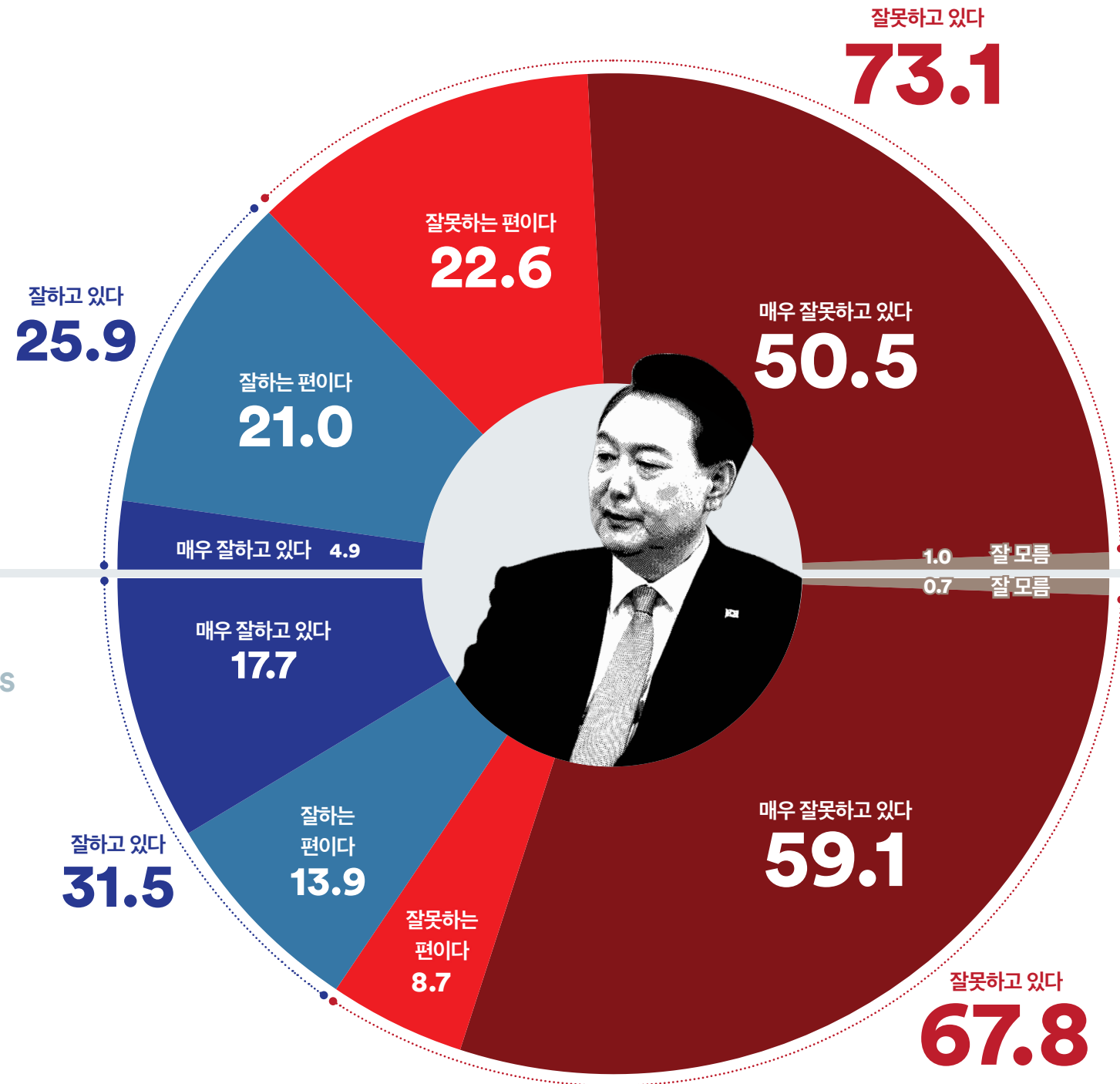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4.1%p(69차: 24.9%p), ARS 23.4%p(84차: 34.8%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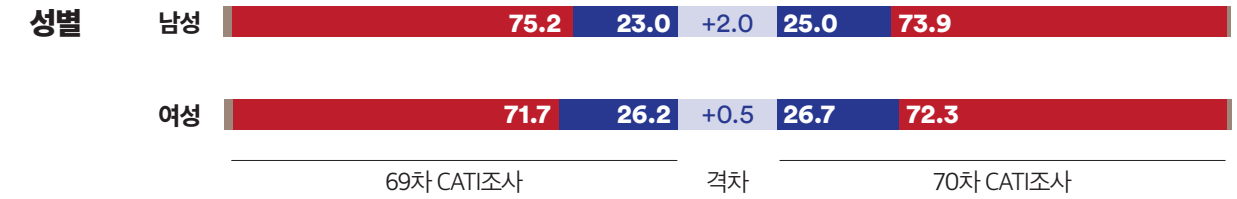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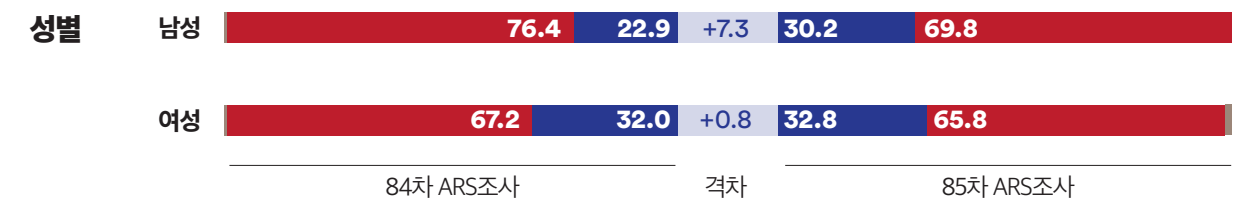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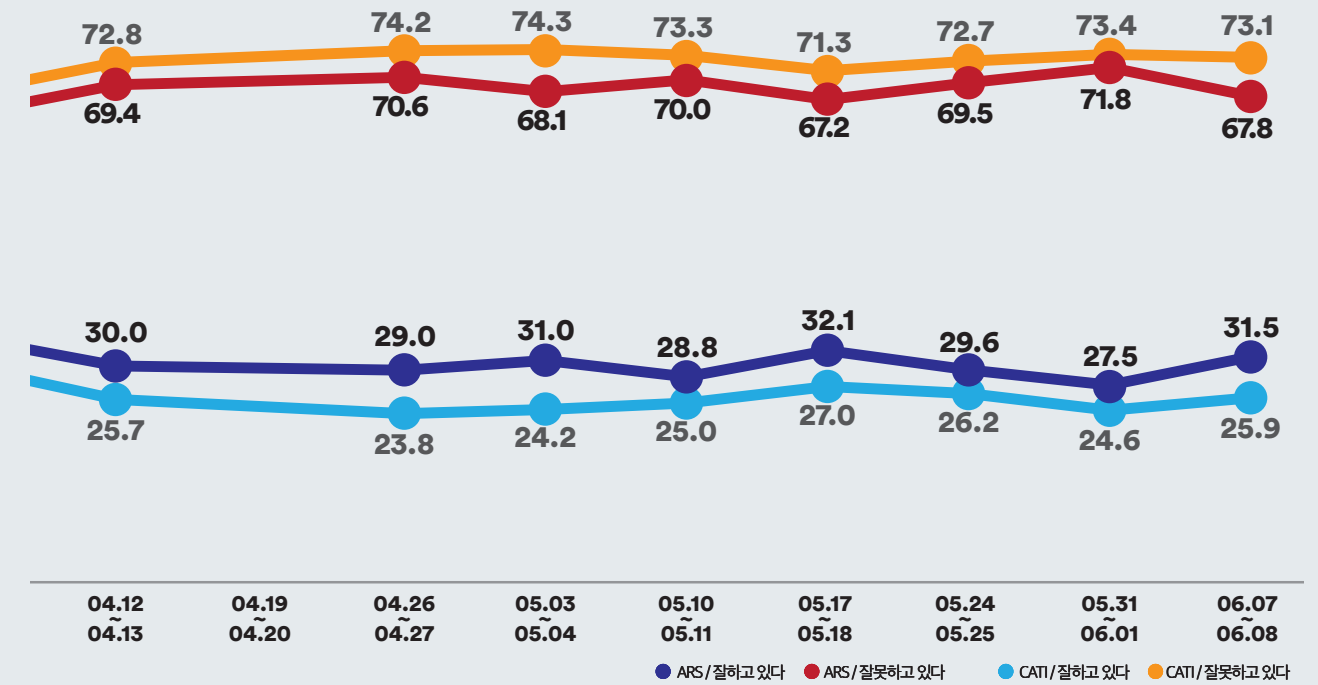
CATI



지난 69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3%p 상승, '부정' 평가 0.3%p 하락(격차 47.2%p)  
 지난 84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4.0%p 상승, '부정' 평가 4.0%p 하락(격차 36.3%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8.7%p(지난 조사: 55.6%p), ARS 37.9%p(지난 조사: 4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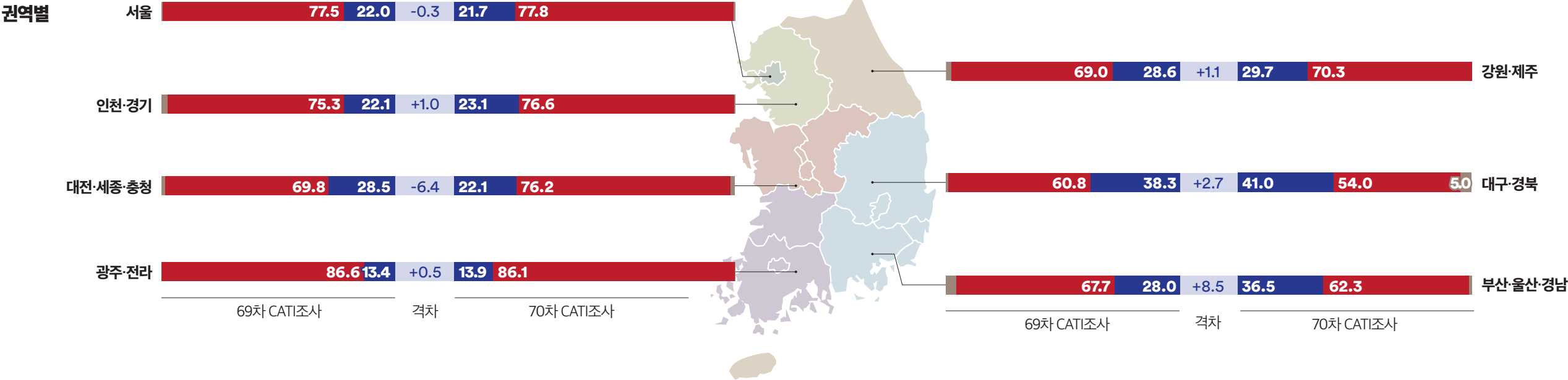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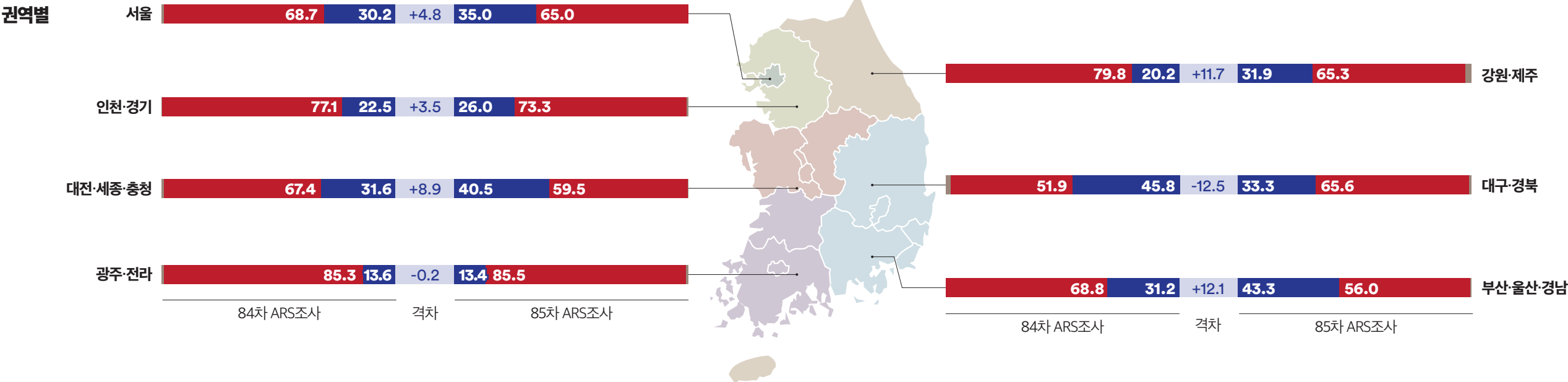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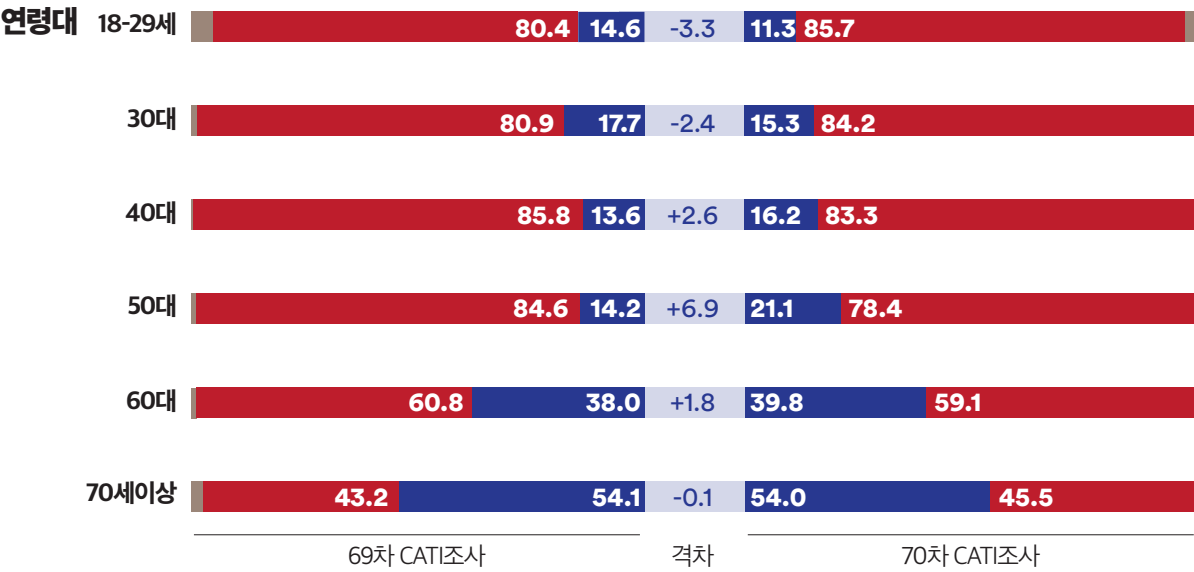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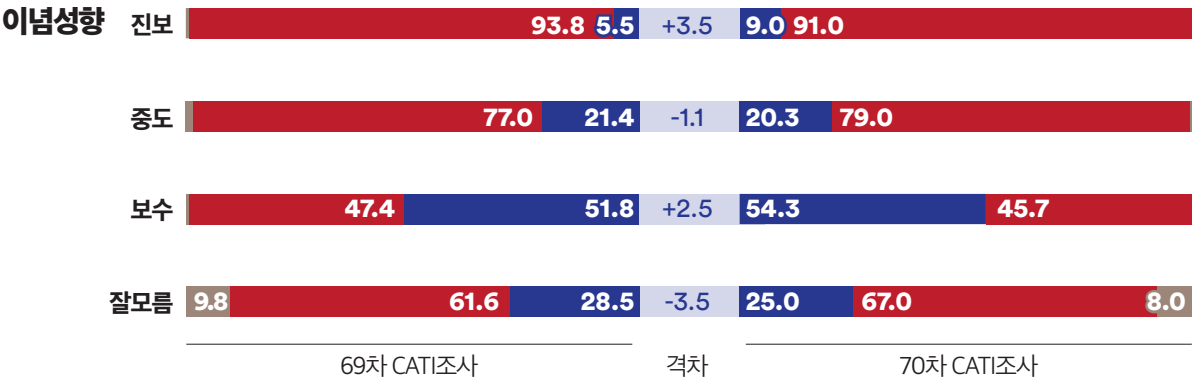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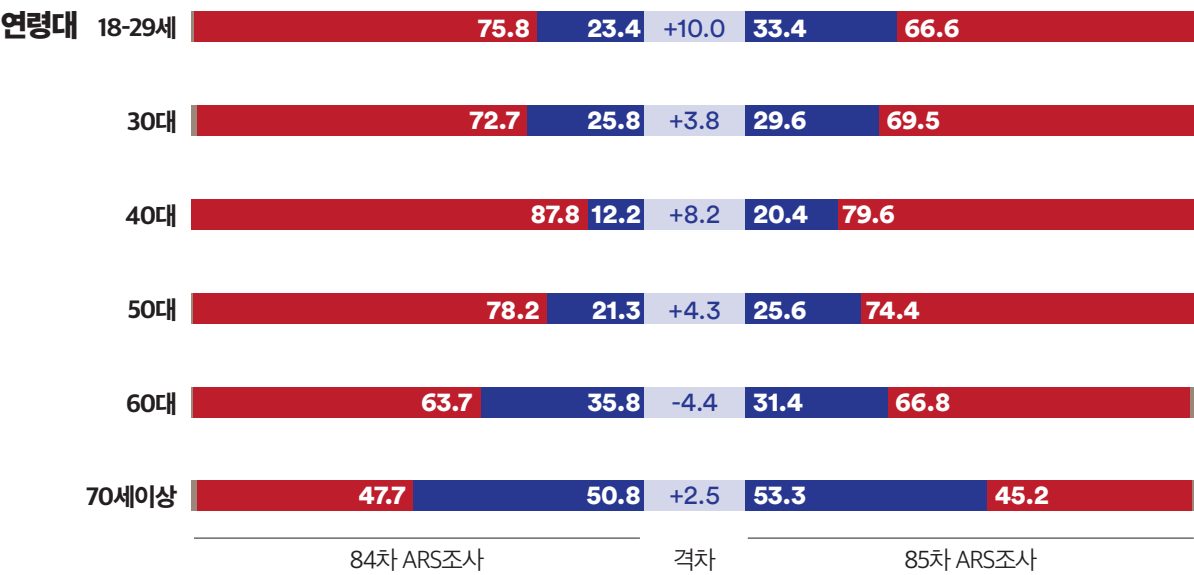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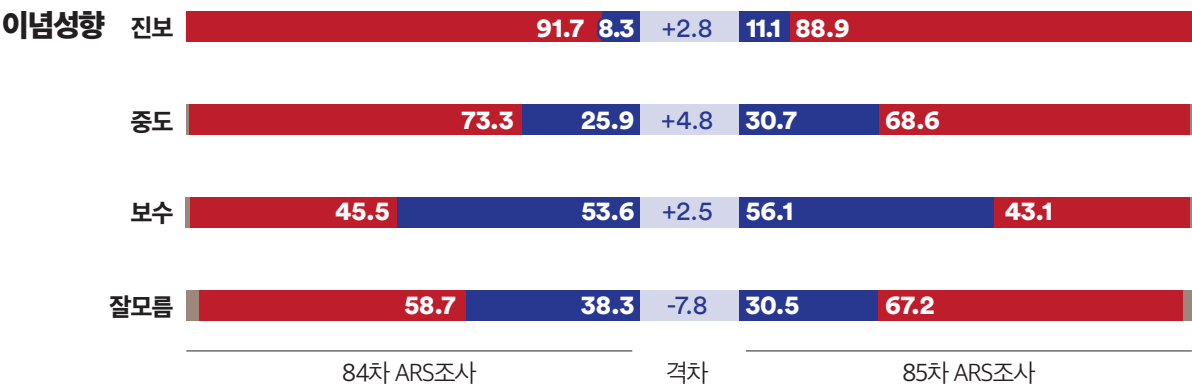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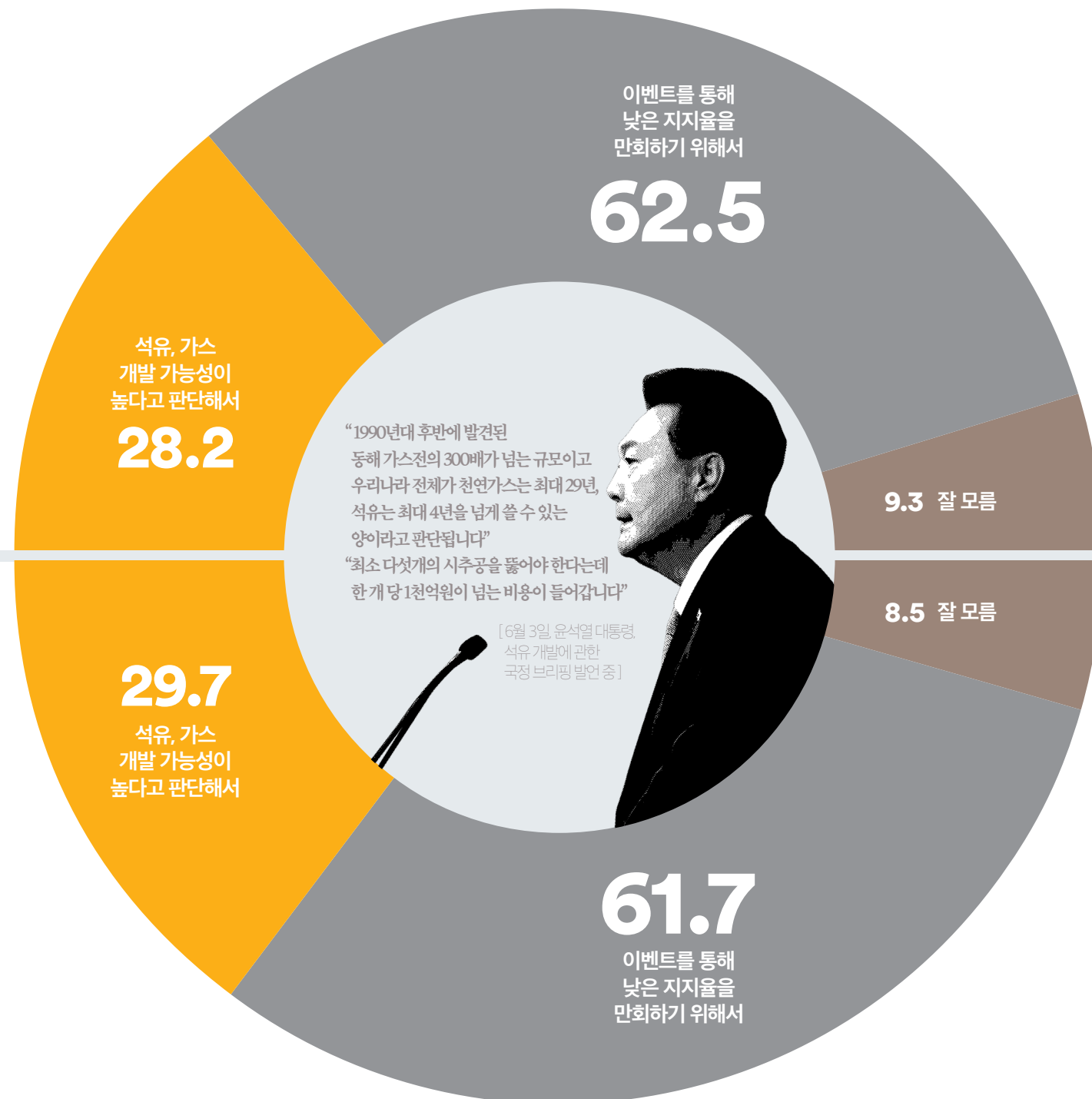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석유개발 가능성을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이 브리핑의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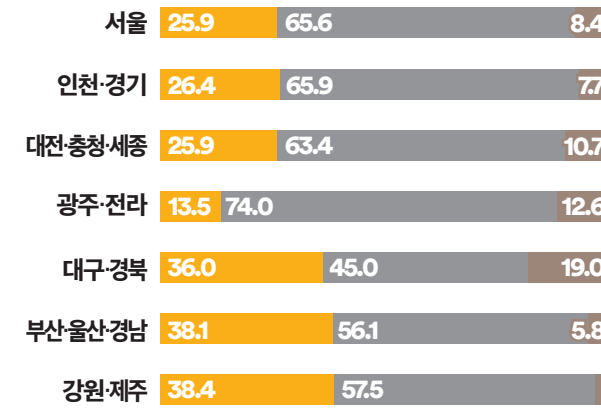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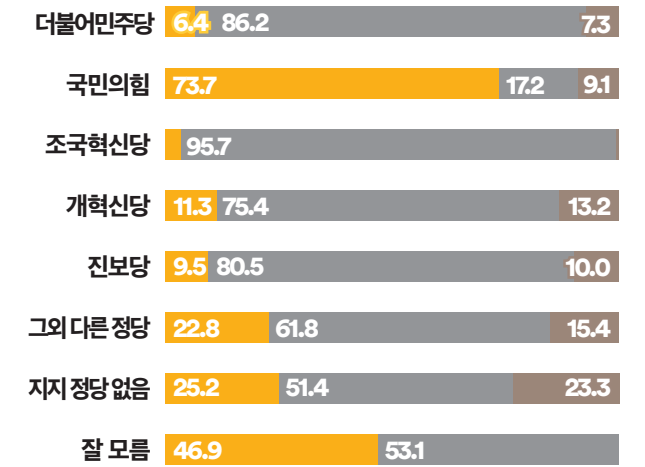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라 응답, 압도적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34.3%p, ARS 32.0%p)  
60대이하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지지율 만회’란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은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CATI에서 14.3%p, ARS에서 15.2%p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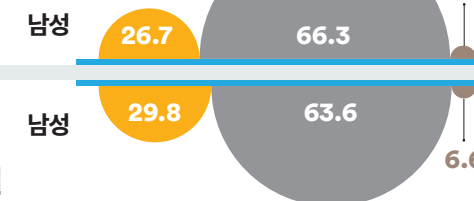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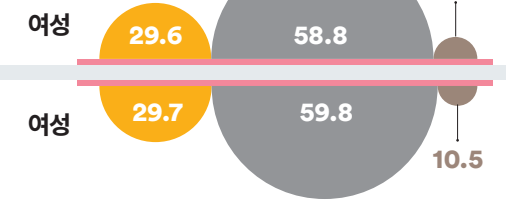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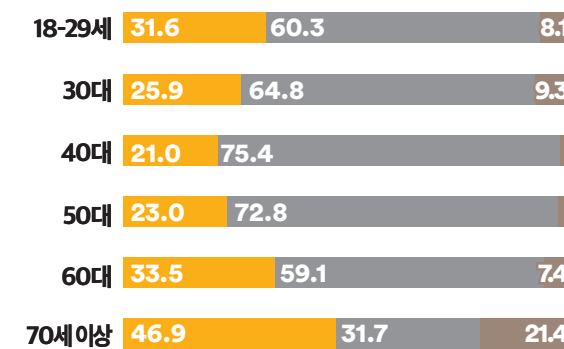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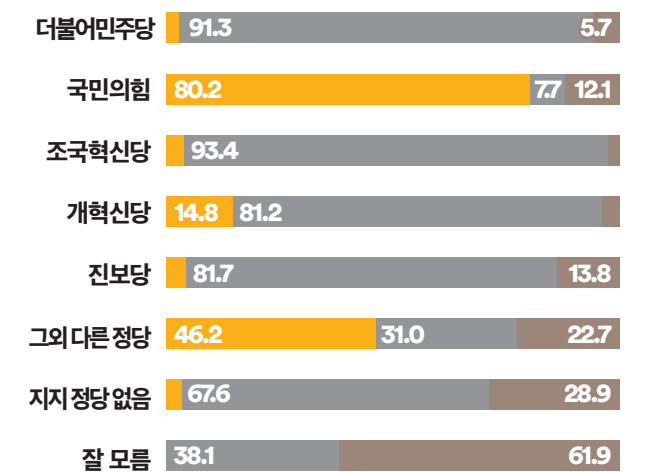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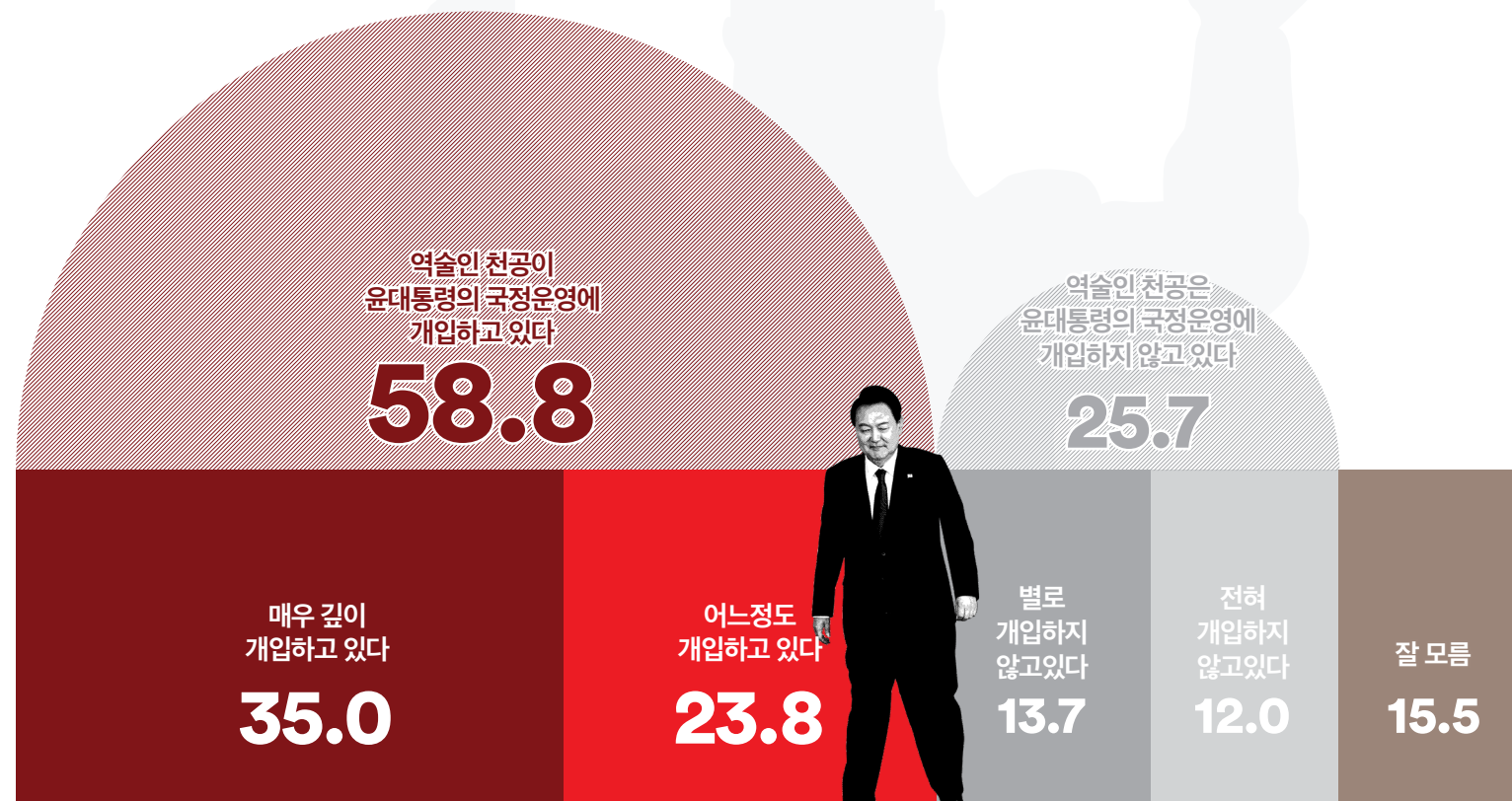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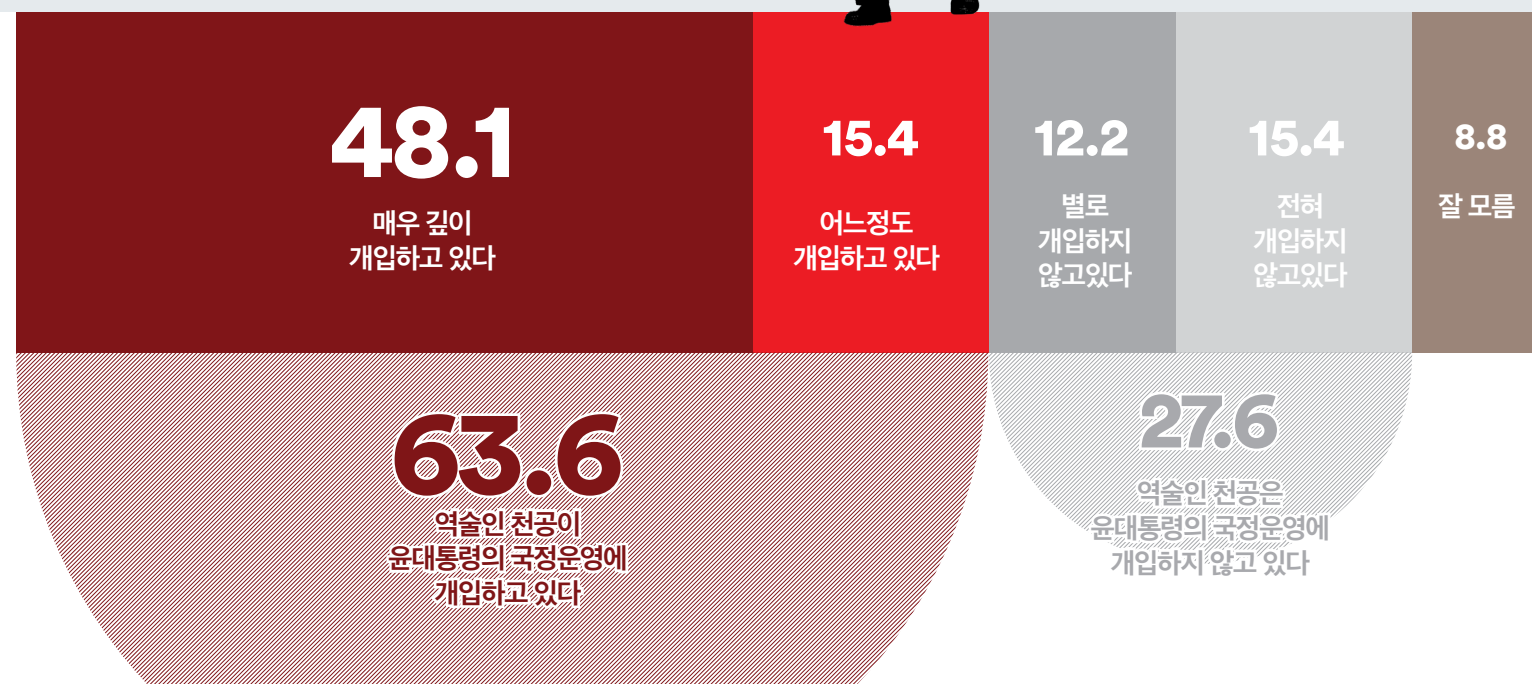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잘 모름

Q. 역술인 천공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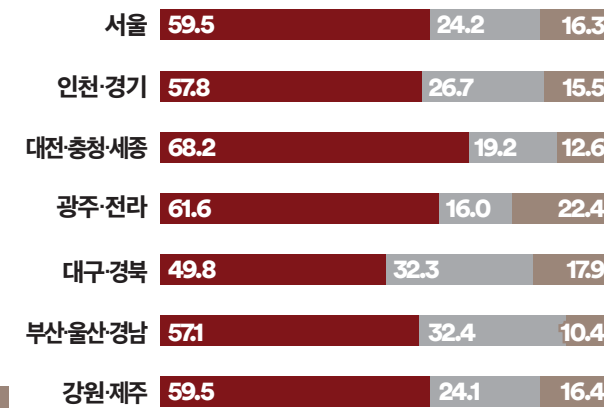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역술인 천공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3.1%p, ARS 36.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역술인 천공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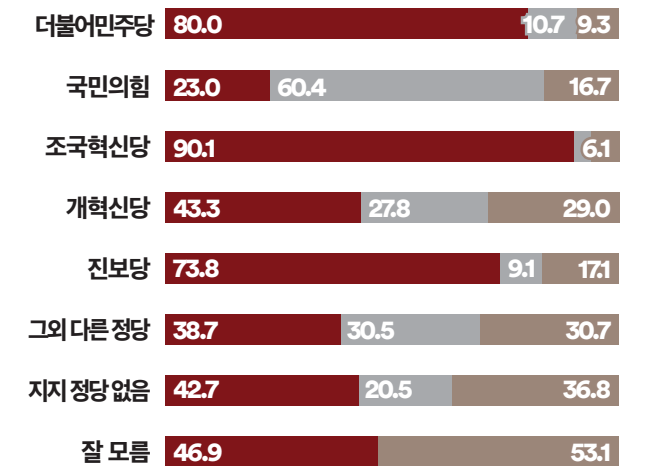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CATI 조사에서는 두 응답이 박빙, ARS 조사에서는 '개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4.1%p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의 60% 이상은 '역술인 천공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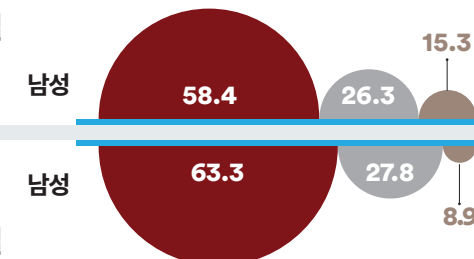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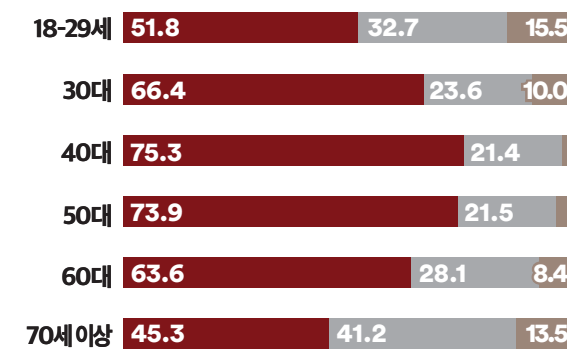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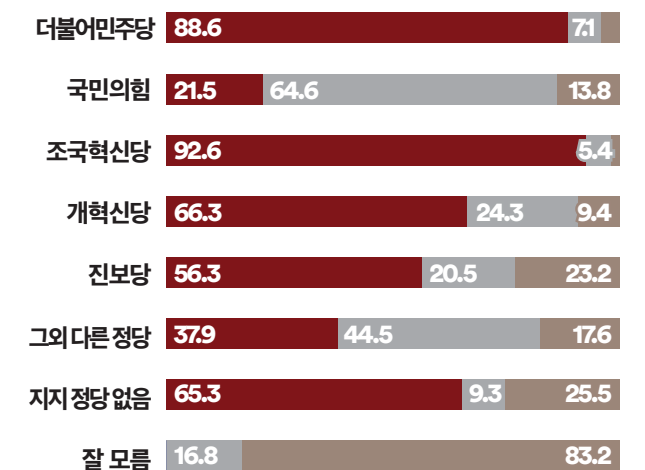
성별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 개입하고 있다 ■ 개입하지 않고 있다 ■ 잘 모름



Q. 국회 원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라는 관례에 따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견이 있다면 시한이 정해진 국회법 준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ATI

더불어민주당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것입니까?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원 구성 관련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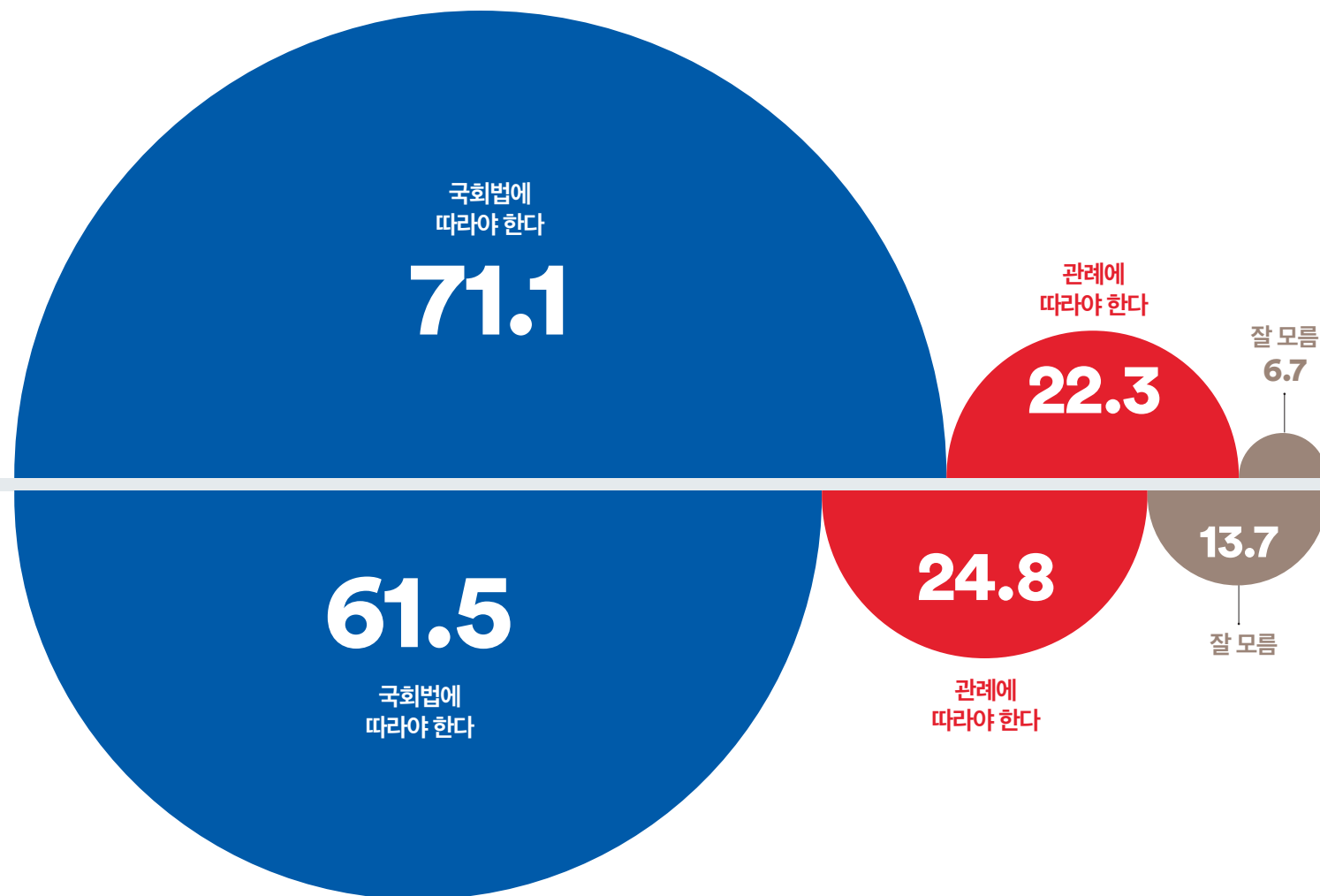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하는데 정말 자제돼야 합니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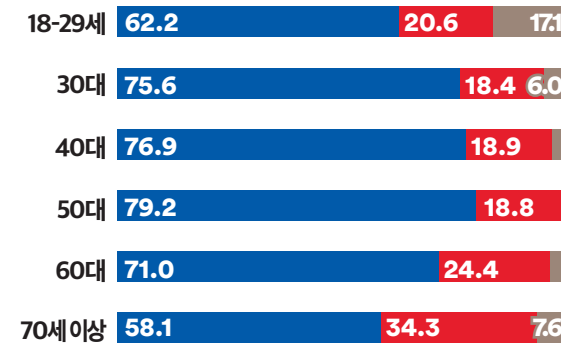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원 구성 관련 발언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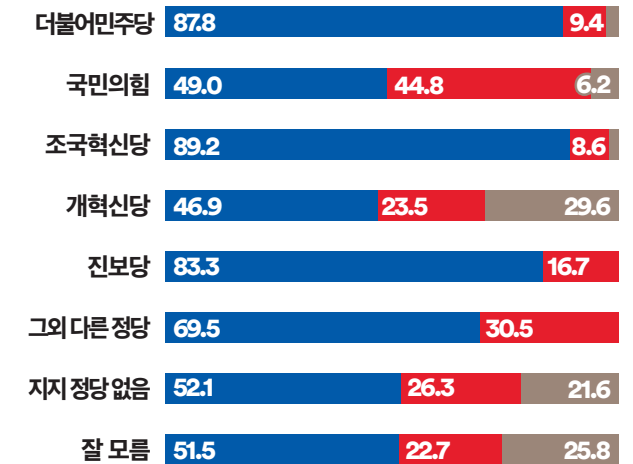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두 당의 주장 중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본 결과, CATI는 10명 중 7명 이상, ARS는 10명 중 6명 이상이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48.8%p, ARS 36.7%p)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임  
두 조사의 모든 연령대, 성별, 이념층 에서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이상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응답자(CATI 49.0%p, ARS 32.6%p)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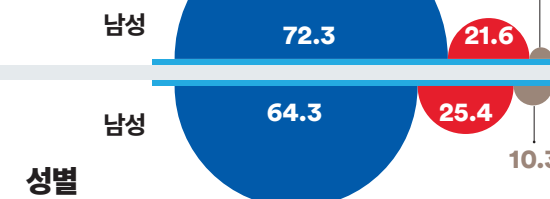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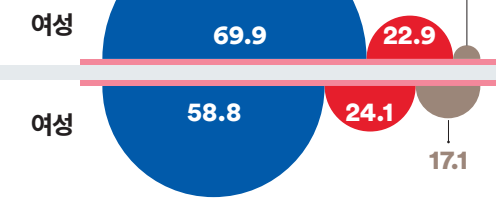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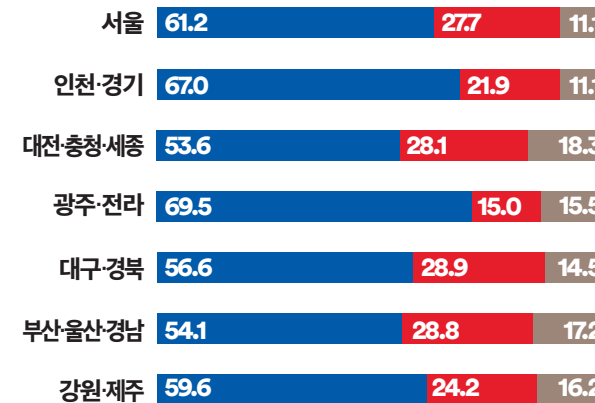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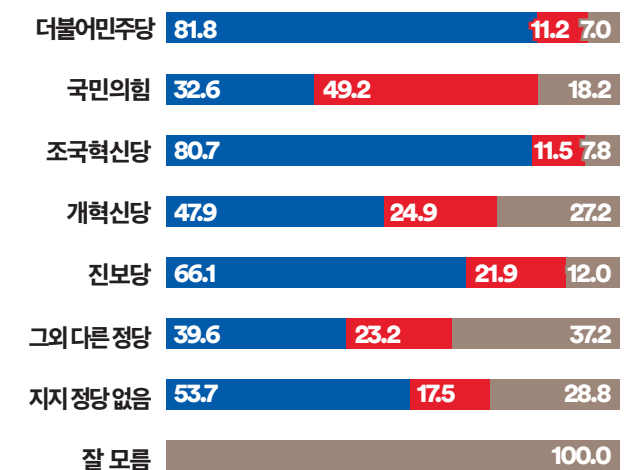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국회법대로 해야한다 관례대로 해야한다 잘 모름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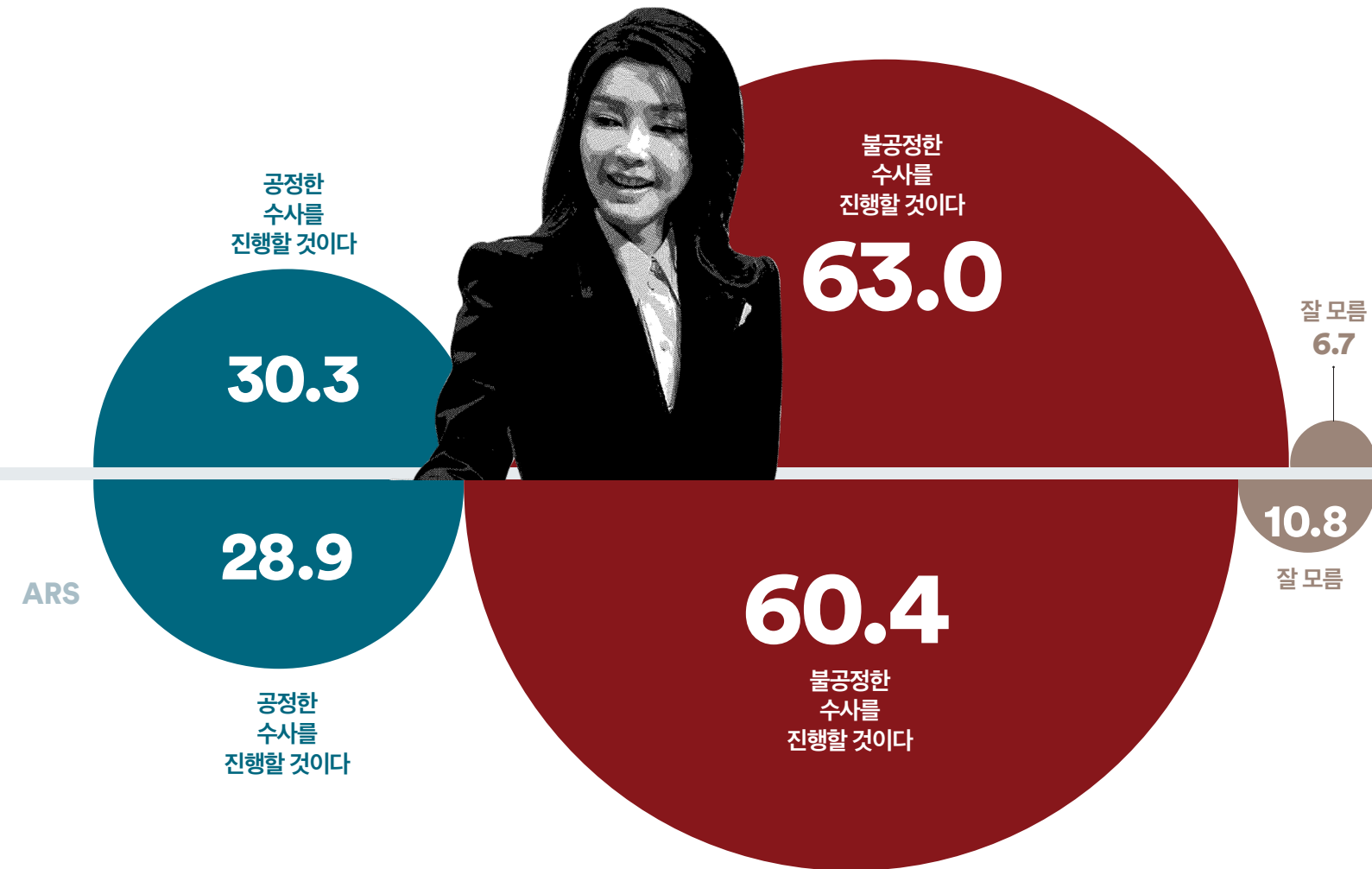
CATI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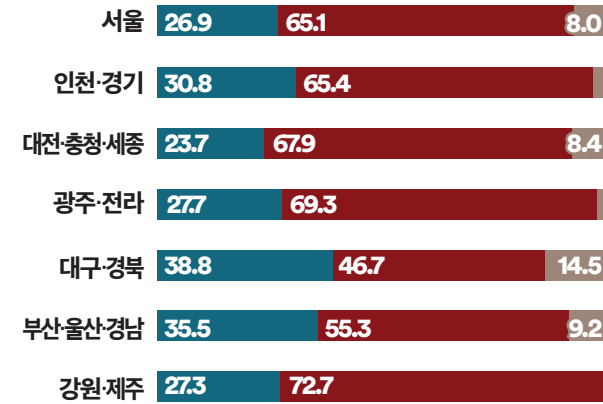
[2024년 6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소환 여부에 관한 입장]

“김 여사와 관련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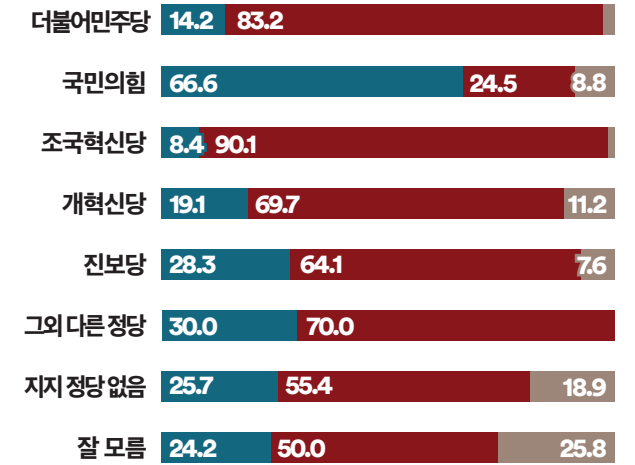
[2024년 6월 6일, 서울중앙지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소환 보도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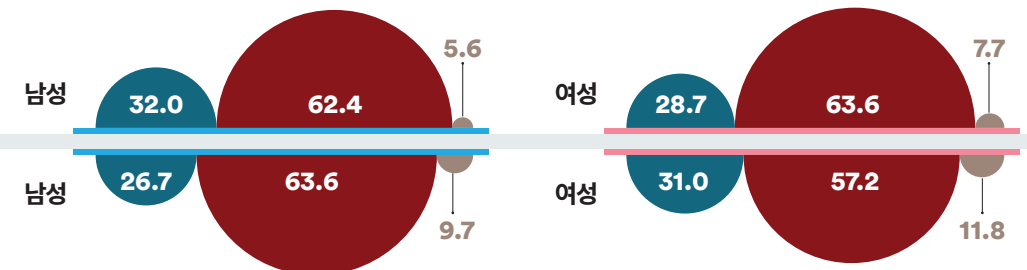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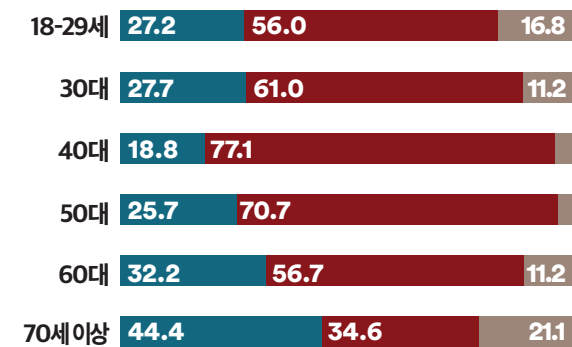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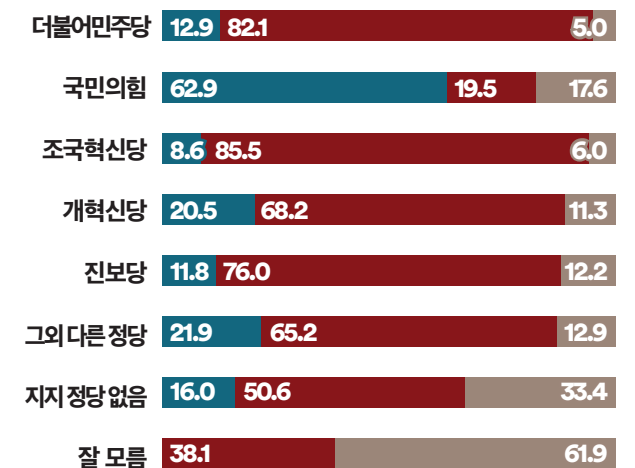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은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전망, 압도적 우세(응답간 격차 CATI 32.7%p, ARS 31.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연령대, 성별에서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임

보수층의 경우 CATI 조사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응답 우세(16.3%p), 반면 ARS 조사는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응답 7.4%p 앞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06\_02

---